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4월

선교편지 제 109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에 '디고스 예일 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기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머릿 속을 지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생소한 이곳에까지 보내 주셔서, 마침내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벅찬 가슴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 준비를 위해서 3월초부터 각 부서별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말씀의 본문은 '룻기'에서 선택하고 찬양과 특별순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만찬 준비는 여전도회 주관인 아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등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여전도회원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해서, 그동안 대접을 잘 받은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불안한 구석이 있었지만, 한번 맡겨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창립 기념 주일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담당한 청년들이 토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루종일 수고한 것도 모자라서 거의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음식 준비가 완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하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한 특별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아카펠라에 강한 셀 그룹 대표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초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창립 기념 주일의 가장 주목을 받았던 특별 순서는 다름 아닌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말씀 본문인 '룻기'를 1장 부터 4장까지 모두 외어서 성경을 봉독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3명이 룻기에 나오는 여자, 남자, 해설자를 대표하여 마치 성우가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음향 효과와 절제된 움직임을 동반하여 룻기 전체를 암송하여 성경 봉독을 대신 하였습니다. 본문 전체를 암송한 것도 대단하고, 잘 준비된 음향 효과를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원들이 감탄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수고하여 준비한 맛있는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만찬 후에는 전 교우들이 함께 게임등을 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창립 기념 주일을 보냈습니다.



연약하지만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며, 또한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 1:25)

 제가 살고 이곳에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잘 알려진 소위 'Fast Food' 전문점들이 많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 잡을 정도까지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이들의 생일과 같은 각종 특별한 날에 가족이 모여서 별식을 나누기에 충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 익히 잘 알려진 'Fast Food' 전문점 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기 전 제가 익숙했던 곳과는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음식을 다 먹은 이후에 뒷처리를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줄을 서고, 주문한 음식을 받아서, 빈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먹고 난 이후에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는 그냥 테이블에 놓고 나가는 것이 이곳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즉, 쓰레기 통이 곳곳에 놓여 있지만, 'Fast Food' 전문점임 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먹고 난 이후에 다음 사람들을 위한 테이블 뒷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Fast Food' 전문점에 들어 설 때마다, 테이블은 물론 실내 바닥까지 먹고 남은 쓰레기로 넘친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새벽 동이 트기 직전에 제 아내와 함께 집에서 키우는 개를 데리고 인근 묘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첫번 일과입니다. 무더위로 하루 종일 땀과 함께 범벅이 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새벽 시간 만큼은 가을 날씨 부럽지 않은 선선한 기온 가운데, 먼지와 소음이 없는 구별된 시간이기에 저희 부부가 놓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한가지 '장애물'을 통과 해야 합니다. 묘지 입구에 들어 서기 직전에 동네 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을 지나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쓰레기 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차고 넘쳐서 주변에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것들이 더 많고, 동네의 개, 고양이, 닭들이 쓰레기를 헤쳐 놓은 까닭에 악취와 함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을 찡그리게 합니다.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피해서 빨리 지나가야만,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사는 동네처럼 공용 쓰레기장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디고스나 바카카 지역은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동네 전체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곳에나 버리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 좋은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역을 하는 교회와 주변 만큼은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하기에, 청소와 쓰레기 처리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각장에서 태우기도 하고, 차에 실어 멀리 쓰레기 장이 있는 곳까지 가서 버리고 있는데, 여전히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 중에 하나 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카카 사역을 위해 걸어서 마을에 들어 서는데, 그 날따라 마을 주민 몇몇이 동네 마당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평소와 다른 매우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작년말 이곳을 강타한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가운데, 곳곳마다 쓰레기가 아무렇게 널려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이들과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청소가 계속되어 쓰레기를 태우는 매운 연기가 바람을 따라 실내로 들어와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까닭에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 동네 마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또한 공터 한가운데 놓여진 용도를 알수 없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도 못질을 다시하여 비교적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주간이어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내 '성 금요일 (Good Friday)'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모든 상업 행위는 중단되고, 거리에 차량 및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날만큼은 카톨릭 국가답게 모든 일상이 정지된 것처럼 고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카카 사역을 위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로 들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처 볼 수 없었던 묘지경과 같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인 바카카는 '성 금요일'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공휴일로 즐기면서, 마을 전체가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모든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요란한 음악과 함께 먹고, 마시며 공휴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남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투계 (Cockfighting)'로 인하여 닭이 싸우는 것인지 사람이 싸우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모두들 술과 도박으로 흥분된 상태에 빠진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동네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한 까닭도 이 날을 위함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로 인하여 사역을 감당하기가 평소보다 쉽지 않았고, 밖의 위세에 눌려 저희들이 감당하는 사역이 너무도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이 없는 이곳까지 보내신 까닭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 보는 귀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사 22:2)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지역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